

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

2026. 5. 21.

공정거래위원회

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

※ 밀가루, 계란, 돼지고기, 전분당 등 물가 TF 특별관리 품목 지정(3.12.) → 밀가루 심의 완료(5.19.)

1.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

- (행위) 7개 제분사는 '19.11월부터 '25.10월까지 ▲주요 수요처(농심 등) 밀가루 공급가격·물량(전용분)과 ▲일반 B2B 공급가격(표준 제품) 등 합의

* 제분 시장은 비용 구조의 유사성(원재료 공동 수입) 및 낮은 제품 간 변별성 등으로 인해 공급가격이 핵심 경쟁 요소 → 업계 차원의 담합 유인이 큰 구조

- 7개 제분사 평균 공급가격 대폭 상승

* 중력분 기준 507원/kg('19.12월) → 820원/kg('22.9월) (61.6% ↑)

- (조치) 시정명령 및 과징금 6,710억 원 부과(역대 최대 금액)

※ '26년 1월 검찰 요청으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인에 대한 고발은 기완료

- ▶ [시정명령]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및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·보고 명령 등
- ▶ [과징금] 대선 384억 원, 대한 1,793억 원, 사조 1,831억 원, 삼양사 948억 원, 삼화 194억 원, CJ제일제당 1,317억 원, 한타 243억 원

2. 의의

- 물가안정 높은 가공식품 물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 확인

- 조사·심의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밀가루 가격 인하 → 물가안정 기여

* 밀가루 업계 최대 8.2% 출고가 인하('26.1Q) → 빵 최대 6% 과자 최대 6.7% 라면 최대 14.6% 인하

- 시정강화 담합효과 제거를 위해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

*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보고(3개월 내)

- 또한,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 부과

3. 향후 계획

- (이행 관리) 재결정 가격·산출근거 검토 및 담합 징계 규정 신설 확인 등

- (신속 심의) 전분당 담합 건(4개사) 심의 마무리(7월 초)